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한문영역 풀이 및 해설

1. ③

한자의 변천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상형문자인 ‘犬’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 ②

제자원리 중 ‘形聲字’의 원리를 이용한 독음을 묻는 문제이다.

口 + 乎 = 呼 : 호(부르다)

3. ②

사자성어를 형성하는 공통의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不恥下問(불치하문) :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燈下不明(등하불명) : 등잔 밑이 어두움 - 가까운 곳의 일을 오히려 잘 모름

4. ④

제시한 설명에 관련된 절기(節氣) 찾기

① 立春(입춘) ② 夏至(하지) ③ 秋分(추분) ④ 冬至(동지) ⑤ 小寒(소한)

5. ①

풀이에 맞는 사자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烏飛梨落(오비이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다

緣木求魚(연목구어)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

6. ⑤

문장 속에 쓰인 한자의 음과 풀이(파이널 1회 12번)

* 惡 1. 악하다, 나쁘다 (악) 2. 미워(싫어)하다 (오)

7. ④

풀이에 알맞은 ()안의 한자 찾기

* 惟(유) 오직

8. ①

두 문장의 對句(대구)를 이용하여 괄호 안의 한자어 찾기

成功之難, 如登天 : 성공의 어려움은 하늘을 오르는 것 같고

失敗之易, 如燒毛 : 실패의 쉬움은 털을 태우는 것 같다

9. ①

제시한 문장과 설명에 알맞은 사자성어 찾기(파이널 3회 12번)

* 己所不欲, 勿施於人. :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① 推己及人(추기급인) :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하다

② 朝三暮四(조삼모사) :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어 농락하다

③ 結草報恩(결초보은) : 풀잎을 엮어 은혜를 갚다. 죽어서도 은혜를 갚음

④ 大器晚成(대기만성) : 크게 될 사람은 오랜 시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짐

⑤ 我田引水(아전인수) : 내 논에 물 대기.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

10. ③

제시한 글을 해석하고 문맥에 알맞은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2005수능특강 104쪽)

* 設有四分之二者，繁而言之，亦可爲八分之四，約而言之，則二分之一也.

가령 4분의 2를 복잡하게 하여 그것을 말하면 8분의 4이고 간단한 수로 말하면 2분의 1이다

11. ①

제시한 단문을 해석하여 지시한 한자어의 내용에 관련된 한자어 찾기(2004수능특강 120쪽)

* 大抵，卜居之地，地理爲上，生利次之，次則人心，次則山水. ㉠四者缺一，非樂土也.

대저 살 만한 곳은 지리적인 조건이 으뜸이 되고 생산되는 이익이 그 다음이고, 다음은 인심이고, 다음은 곧 산수다. 네 가지 것 가운데 한 가지만 부족해도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 卜居(복거) : 살 만한 곳을 가려서 정함. 곧 사는 집

▷ 樂土(낙토) : 살기 좋은 땅

12. ②

제시한 단문의 주제 찾기

사람의 본성은 착함을 주장하고 있다

* 人性之善也，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水無有不下.

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은 착하지 아니함이 없고, 물은 내려가지 아니함이 없다

13. ③

제시한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 찾기

* 人有求爲山水，畫山不畫水. 人怪詰之，七七，投筆起曰：“紙以外，皆水也.”

산수화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칠칠이) 산은 그리면서 물을 그리지 않자, 사람이 괴이하게 여기어 그것을 꾸짖었다. 칠칠(최북)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서 말하였다. “종이 밖이 모두 물이다.”

14. ③

제시한 글의 내용에 관련된 풍속 찾기(2004수능특강 111쪽)

* 安東俗，每年正月十六日，府內居民，以中溪，分爲左右，投石相戰，以決勝負.

안동 풍속에 매년 정월 16일이 되면 고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중양의 시내로 좌우로 편을 나누어 돌을 던지며 서로 싸워 승부를 결정지었다

15. ⑤

제시한 내용에 알맞은 한역속담 찾기(파이널 4회 8번)

* 九層之臺，起於累土 : 9층의 높은 집도 한 줌 흙을 쌓은 데서 일어난다

① 難上之木，勿仰 : 오르기 어려운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② 無足之言，飛于千里 :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날아간다

③ 月滿則缺，物盛則衰 : 달도 차면 기울듯이 사물도 성하면 쇠잔해진다

④ 他人之宴，曰梨曰栗 : 남의 잔치에 배를 말하고 밤을 말한다. 쓸데없는 참견을 경계

⑤ 含抱之木，生於毫末 : 아름드리나무도 털끝 같은 싹에서 생겨난다

<16~17> 해석

옛날에 동해 용녀가 가슴에 병이 나서 의원이 말하였다. “토끼의 간을 얻어 약에 합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바다 속에는 토끼가 없어 어찌할 수 없었는데, 어떤 거북이 한 마리가 용왕에게 아뢰어 말하였다. “제가 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물에 올랐다.

16. ①

문장의 형식 ‘가정형’을 구하는 문제이다.

- ① 國亂，則思良相：나라가 어지러워지면 훌륭한 재상이 생각난다 (가정형)
- ② 積功之塔，豈毀乎：공을 쌓은 탑이 어찌 무너지리오 (반어형)
- ③ 天帝，使我長百獸：천제가 나로 하여금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 노릇하게 했다 (사동형)
- ④ 君子，必慎其獨也：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됨을 삼가야 한다 (평서형)
- ⑤ 一日之狗，不知畏虎：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부정형)

17. ④

글 속의 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18~19> 해석 (2005수능특강 40쪽, 파이널 7회 11번)

무릇 글을 읽는 것은 산에 놀러 다니는 것과 같으니, 산에 오르는 것이 아직 반도 되지 않았는데 그치는 사람이 있으며, 두루 돌아다녀도 아직 그 정취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반드시 그 산수의 정취를 알아야만 바야흐로 산에 놀러 다녔다고 말할 수 있다.

18. ⑤

문장 속의 한자어의 짜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山水(산수)：산과 물 (대등)

- ① 日出(일출)：해가 뜨다 (주술)
- ② 耕田(경전)：밭을 갈다 (술목)
- ③ 黃土(황토)：누런 흙 (수식)
- ④ 赤松(적송)：붉은 소나무 (수식)
- ⑤ 草木(초목)：풀과 나무 (대등)

19. ⑤

문장 독해 후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위 글은 독서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20~21> 해석 (2004수능특강 51쪽)

승상 조고가 권력을 쥐고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나, 여러 신하가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이에 먼저 시험 삼을 것을 준비하니, 사슴을 가지고 2세(호해)에게 바치면서 말했다. “말입니다.” 2세가 웃으며 말했다. “승상이 잘못 알았구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니” 좌우에 있는 신하에게 물었으나, 어떤 사람은 묵묵히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고) 말했다.

20. ②

문장에 쓰인 한자어구의 풀이를 묻는 문제이다.

* 不聽(불청)：듣지 않다. 즉 따르지 않다

21. ③

문맥상 괄호 안에 빠진 한자 찾기

指鹿爲馬(지록위마) 고사를 이해

<22~24> 해석 (2005수능특강 72쪽)

세종 13년에 임금이 말했다. “태종실록이 거의 완성되었으니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우의정 맹사성이 말하기를 “실록에 실은 것은 모두 당시의 일로 후세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니 모두 실제의 일입니다. 전

하께서 보시더라도 또한 태종을 위하여 다시 고칠 수는 없고 지금 한 번 그것을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 이 그것을 본받을 것이고 사관은 의아해 하고 두려워, 반드시 그 직분을 잃고 말 것이니, 무엇으로써 장래에 믿음을 전하시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의 말을 따랐다.

- ▶ 上 : 임금.
- ▶ 垂 : 거의.
- ▶ 右相 : 우의정(右議政), 조선 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정일품 벼슬.
- ▶ 殿下 : 황태자나 제왕의 존칭.
- ▶ 爲 : 위하여.
- ▶ 人主 : 임금.
- ▶ 疑懼心 : 의아해하고 두렵다.
- ▶ 何以 : 무엇으로써

22. ④

문장해석

- * 予欲觀之 : 내가 그것을 보고자 한다

23. ②

지문에 등장한 인물의 성품이나 행동을 한자어로 나타내기

- ① 曲學(곡학) : 학문을 왜곡함
- ② 直言(직언) : 곧고 바른 말을 함
- ③ 助長(조장) : 무리하게 도와서 도리어 해가 됨
- ④ 順從(순종) : 온순하게 복종함
- ⑤ 過恭(과공) : 지나치게 공손함

24. ④

독음 알기

- * 疑懼(의구) : 의심하여 두려워함

<25~27> 해석

최무선은 성품이 공교하고(재주 있고) 슬기로우며, 갖가지 방책이 많았으며, 병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일찍이 말하기를, “왜선을 제압하는 데에 화약만한 것이 없다.”고 했으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만들 줄 아는 자가 없었다. 무선이 매년 (중국)강남에서 오는 상인들을 살펴보다가 문득(便(변)) 화약 만드는 법을 물었다. 어떤 한 상인이 대강 아는 대로 알려주자 (그에게) 부탁하여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옷과 먹을 것을 대주고 여러 날을 지내면서 상세하게 물으니, 자못 (화약제조의)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다.

25. ④

문장해석 (최상급 비교 어구)

- * 莫若火藥 : 화약만한 것이 없다. 화약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26. ②

문장해석 순서

문득(便) 화약 만드는 법(火藥之法)을 물었다(問)

27. ⑤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28~30> 한시해석

(가) 四山圍獄雪如海, 사방 산은 감옥을 두르고 내린 눈은 바다와 같은데

衾寒如鐵夢如灰. 무쇠처럼 차가운 이불 속에서 꾸는 꿈은 잿빛이어라

鐵窓猶有鎖不得, 철창은 여전히 잠기어 열리지 않는데

夜聞鐘聲何處來. 깊은 밤 종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가

- 한용운(韓龍雲), 「설야(雪夜)」-

*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일제시대 감옥에 수감되어 혹독한 추위에 떨면서도 깨어 있는 정신의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7언절구로서 운자는 海, 灰, 來 이다

(나) 蒼茫歲暮天, 新雪遍山川. 아득하고 푸는 세모의 하늘에 첫눈이 산천을 두루 덮었네

鳥失山中木, 僧尋石上泉. 새는 산 속 나무를 헤매고 스님은 돌 위의 샘을 더듬네

飢鳥啼野外, 凍柳臥溪邊. 굶주린 까마귀들은 들 밖에서 울고 얼어버린 버드나무 개울가에 누웠

네

何處人家在, 遠林生白煙. 어느 곳에 인가가 있는가 먼 숲에서 하얀 연기 피어오르네

- 이송인(李崇仁), 「신설(新雪)」-

* 첫 눈을 맞이한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5언율시로서 운자는 짝수구 끝에 오고 있으며, 3,4구와 5,6구는 각각 대우(對偶)이다.

28. ⑤

시어풀이

溪邊 : 고개마루 → 개울가

29. ③

시의 소재 파악

30. ①

③ (나)의 형식은 5언율시

⑤ (나)의 3,4구와 5,6구는 각각 대우(對偶)이다